



지관스님 검문 등 종교편향 > 어 청장 사과 > 경찰포교활성화 경승활동 다시 불 붙이자

종교편향 논란을 빚은 어청수 경찰청장이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찾아 사과했다. 8·27 범불교도대회를 촉발시켰던 “총무원장 스님 일수록 더욱 검문해야 한다”던 한 경관의 버릇장머리도 지관 스님의 “없던 걸로 하자”는 말과 함께 눈 녹듯이 사라졌다.

교계에서는 경찰조직에 의한 종교편향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게 경찰포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할 만큼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해 있는 공권력이다. 지금은 가블릭 신자가 되어 청장이 본래 불자였듯이, 경찰 조직 내 진급을 위해 개종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 가는 15만 경찰 및 전의경 포교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본다.

#열악한 경찰 포교 실태

군포교를 군승이 맡듯, 경찰포교는 주로 경승이 담당한다. 1986년 12월 ‘경찰 위촉 승려운영규정’으로 시작된 경승은 경찰포교의 주역으로 경찰들의 신행활동을 도왔다. 경승조직인 대한불교경승단은 경찰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불교의 사회기여 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10월 27일 서울신문의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경찰서 내 경목(개신교)·경승(불교)·경



어청수 경찰청장이 11월 1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종교편향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박재원 기자

신(가톨릭)실의 운영 실태’에 따르면, 서울지역 31개 경찰서에 위촉된 경목은 137명, 경승은 76명, 경신은 16명이다. 경승은 경목의 절반에 지나지 않고 용산·동작·구로·양천 4개 경찰서에는 경승실조차 없다.

#경승수첩은 교통위반시 면책용?

육천경찰서 경승실장 혜철 스님(대성사 주지)은 “경승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스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라고 질타 말했다. 스님은 “경승 추천을 받기는 각 일선 경찰서 상황과 달리, 경승이 경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지팡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예규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는 각 종교 당 성직자를 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 이 스님은 이어 “처음 원

#경승단 체계적 지원 시급

스님 개인뿐만 아니라 종단도 문제다. 현재 조계종의 경승단 지원금은 2000만원 수준이다. 다른 종단의 경우는 아예 전무하다.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관리체계 또한 정비 시급하다.

조계종 포교원 ‘2007 지방경찰청 경승위촉 현황’에 따르면 제주(121%), 부산(84%), 대구(69%), 충남(69%) 등 지역의 위촉율은 평균 이상인 반면 전북(25%), 전남(46%) 지역은 13개 경찰서에 위촉경승이 없다. 단지 경승이 부족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편차 등 체계적인 관리 체제도 갖지 못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위촉율과는 별개로 서울 지역(위촉율 48%, 미위촉경찰서 8곳), 경기 지역(위촉율 122%, 미위촉경찰서 8곳) 등은 출립현상으로 인원배분 필요성 또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승단 관계자는 “경승 위촉 시 교단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찰청 예규 제9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제도에 묶인 경찰 불심

실질적인 경승단 업무를 보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중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단의 추천서’로 불명확하게 명시된 경찰청 예규 제9조를 ‘경승단 추천’으로 개정 요구 했지만, 경찰은 일선 경찰서장 위촉권한 침해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경찰조직이 경승단을 바라보는 시선은 제9조 가운데 경승단을 경승회로 오기한 부분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현재 경찰불자회조직이 공식인 경찰불자회 또한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찰불자회 사무국장 문용찬 경위(서초서 교통시설과)는 “2년마다 부임지가 바뀌는 경찰업무상 임원직을 맡더라도 타지역으로 발령이나 불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사무국장은 “특히 회장직은 중앙부처 고위급에서 맡아야 하나 진급 시 피해를 우려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포교다각화로새로운대안 모색

경승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경승단 위상 제고도 필요하다. 또한 부족한 경승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포교사를 활용한 제도와 지역사무원 합동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경찰, 전의경, 경찰 가족 포교활성화를 위해 경찰의 종교활동을 담당하는 경종관 도입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

뒤늦게나마 조계종 포교원이 경승지단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2001년 이후 열리지 않은 경승대회 개최의향도 밝힌 것은 다행이다.

예규 개정을 통한 경승체제정비와 지역사찰과의 연계, 더 나아가 경승경찰서 8곳) 등은 출립현상으로 인원배분 필요성 또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승단 관계자는 “경승 위촉 시 교단 추천서를 요구하는 경찰청 예규 제9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예, 잘 지키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는 11월 21일 서울캠퍼스 금강계단(체육관)에서 ‘2008학년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중·고등학교 합동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인 현성 스님을 계사로 모신 이날 수계법회에서 동국대사범대부속고등학교를 비롯한 중립학교 학생 1300여명은 지난날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5계를 받아 청정한 불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박재원 기자

“효율적·안정적 문화재 보호기반 마련”

박근혜 의원 등, 문화재보호기금 법안 발의

문화재 관리의 해법은 예산이나 그동안 기금 하나 없었다. 화재로 소실된 승려문 복구를 위해 당시 당선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성금을 모으자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던 것이나 2005년 산불로 소실된 낙산사 복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알고 보면 문화재를 위한 기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문화재 관련 기금이 조성돼 문화재 보호 등의 예산에 송뿔이 트이게 됐다.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사진)은 11월 11일 강규구 주호영 나경원 이혜훈 이정재 이정현 홍사덕 의원 등 21명의 서명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정을 골자로 한 문화재 보호기금법 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제17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문화재보호기금법을

발의했으나 시한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엔 일부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기금을 마련하고 재원은 정부출연금 및 복권기금 전액, 문화재 관람료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기금 사용은 문화재청이 주관해 문화재 긴급수입 및 복원, 매장문화재 발굴 및 민간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박근혜 의원은 “유네스코도 각

국마다 문화재 기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국가재정으로 기금 재원을 준비한 미국과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는 영국 사례를 혼용해 실용적인 재원 충당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찰 등 대부분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불교계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11월 20일 대변인 장적 스님(기회실장)이 발표한 논평에서 “문화재 예산 점유율이 해마다 감소 추세인 가운데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별도의 재원 확보가 절실했다”며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술 향산화 권역 100%”
청다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안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책사기만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고생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 서울특별시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정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회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인등 LED전구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중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갈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중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중등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모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